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수행과제명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는 실종된 채 한국어만이 사용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일상 가족생활 속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가족으로 자리잡아야 함.
- 그러나 영어, 중국어 등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언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한국인 부부가족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만이

가족언어로 사용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처럼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데에는 자녀의 언어 발달에 대한 염려 등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족이 이중언어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인부부 가족이 가질 수 없는 다문화가족만의 강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 기관을 비롯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중언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목표 또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같은 도구적 가치에 경도되기보다는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엄마나라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 단계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소수언어의 유창성 증진을 목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교육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모두 글로벌 인재라는 정책목표 앞에 줄서기를 해야 되는지도 짚어봐야 함. ‘글로벌 인재’라는 수사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소수에게만 실현가능한 목표일 뿐,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어머니와 어머니나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될 것임.

3. 정책효과

-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
- ☐ 우리사회의 다양성 증진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증진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국가브랜드위원회
